

침체일로의 CIS 석유산업



최 병 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

獨立國家聯合(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정치·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출범한지 반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소련의 정세는 불안하고 장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정치적 대립,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영토·민족분규, 회교권 국가들의 연대 강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CIS 체제가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

다. 그럼에도 구소련지역은 여전히 세계 最大의 석유와 가스의 공급지로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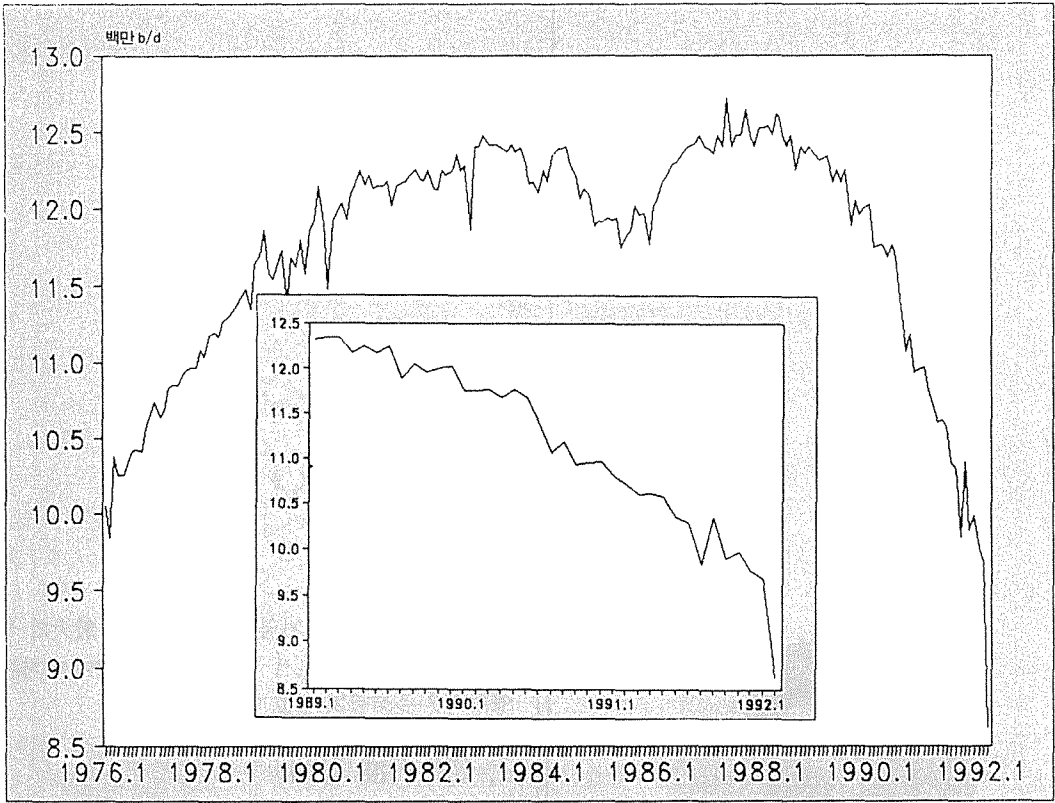
1. CIS 石油 정세

석유산업의 주요 特徵은 에너지 생산의 지속적인 감소와 시장경제 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 도입은 동 산업이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개혁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 보수·개혁파간의 葛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자유화를 둘러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1) 石油 생산감소 심화

91년도 CIS의 원유(콘덴세이트 포함) 생산 실적은 1,030만 b/d였다. 이것은 전년대비 10% 下落한 것이며, 구소련의 최고 생산치인 1,248백만 b/d(87년 실적)보다 무려 17.4%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가 최근 가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그림 참조). 특히 CIS 중 구소련 석유생산의 90%, 가스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크게 감소되고 있다. 금년 1/4 분기까지의 생산실적은 동지역의 생산이 악화되고 있음을 더욱

CIS의 원유생산 감소현황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 되어 금년도 CIS 전체의 원유생산은 830~900만 b/d까지 하락할 것이며, 95년에는 석유 純輸入國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원유의 생산이 급속히 減少하고 있는 것은 동산업이 경제 전반적인 혼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화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근로자의 욕구불만은 자기몫을 크게 주장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의욕을 喪失시키고 있다. 국제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는 원유가격이 대표적이다. 정부 구입 원유가격(도매가격)이 생산비를 겨우 補顛할 정도로 낮아 생산자들이 가격인상을 위해 고의적으로 생산을 축소한다고 할 정도이다. 또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숙련 노동자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장비가 適期에 공급되지 못하는 것도 생산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부시베리아 주요 유

전의 고갈, 노화된 장비·기술, 거대유전의 미발견 등이 원유생산을 결정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2) 완만한 시장경제화

가. 더딘 價格 자유화

CIS 중 러시아가 상품에 대한 가격 자유화를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금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1단계 가격자유화 조치를 단행, 소비재의 80% 이상을 통제가격에서 해제시켰다. 이때 에너지는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되었고 가격만이 1월에 약 400%, 5월에 다시 약 500% 인상되었다. 높은 증가율에 의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국제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약\$3.5/배럴)으로 통제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소비재와 공업제품의 가격 자유화로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하이퍼 인플레이를 겪고 있다. 원유가격은 인상되었지만 실질가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급진 개혁파들은 가격 자유화를 위한 2단계 조치로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적극 추진, 금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保守派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자유화는 최고 30배 이상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급격한 가격의 상승은 에너지 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의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개혁·보수파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개혁파는 가격 자유화로 인한 가격상승은 시장기능을 강화시켜 에너지수급의 합리화를 실현, 생산의 증가, 수요의 감소,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0~15%의 에너지 절약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급격한 가격상승은 초인플레이를 유발하여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CIS 결성의 경제적 유인책의 하나였던 낮은 에너지 가격에 의한 공급이 소멸되어 연합체 해체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은 10월까지 가격의

자유화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CIS 국가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자유화는 보수·개혁파의 권력구조 및 주변 CIS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에 따라 그 속도와 폭이 조절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자유시장 거래의 축소

러시아는 지금까지 석유증산을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의 자유시장 판매물량을 확대하여 왔다. 작년까지 10%였던 자유시장 판매허용 물량은 금년 1월에 20%, 2월에는 40%까지로 확대되었다. 일부에서는 금년 중반까지 생산량의 50% 이상 자유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내의 자유시장가격은 정부 구매가격의 10배 이상(원유의 정부가격 : 350루블/톤, 자유시장 판매가격 : 약 3,650루블/톤 수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자유시장 판매는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 할당량을 우선 공급한 후 허용되는 것이다. 원유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CIS 석유·가스 생산현황

국 가	석 유		가 스	
	1,000 b/d	전년비증가율 (%)	10억 m ³	전년비증가율 (%)
러 시 아	9,220	-11.0	642.7	+0.4
아제르바이잔	234	-5.6	8.6	-13.1
벨로루시	42	0	0.3	0
카자흐스탄	532	+3.1	7.9	+11.3
키르기즈	2	0	0.1	-20.0
타지크스탄	2	-25.0	0.1	-20.0
투르크메니스탄	108	-2.7	84.3	+4.0
우즈베키스탄	56	+1.8	41.9	+3.0
우크라이나	98	-5.8	24.4	-13.0
합 계	10,292	-10.0	810.3	-0.5

<자료> Oil & Gas Journal, 1992. 3. 2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실적 (1/4 분기)

	1991	1992	증가율 (%)
석유(백만톤)	119.2	105.2	-11.7
석유제품	61.7	64.1	+3.9
원유수출	57.5	41.1	-28.5
가스(10억 m ³)	167.1	168.8	+1.0
석탄(백만톤)	104.6	88.9	-15.0
전력(조 Wh)	297.1	290.0	-2.4

<자료> Eastern Bloc Energy, 1992. 3

왔지만, 생산자들에게는 경화의 직접 획득 가능 측면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5월들어 에너지가격을 500% 인상하는 대신 생산자들의 자유시장 판매는 不許하는 조치를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가격자유화에 대한 보수·개혁파간의 정치적 절충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다. 이것은 향후 에너지산업의 개혁이 급진 개혁파들이 원하는 바대로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 石油 관련 法·制度의 미진

CIS, 특히 러시아는 자원개발에 있어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서방투자자들은 신뢰할 만한 법의 부재가 동지역 진출에 있어서 최대의 難點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방의 대기업들이 유망광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직 투자환경(법·제도)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CIS 출범후 러시아는 수출세제에 관한 여러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91년 12월의 대통령령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세를 폐지하였으나, 최종안에는 이를 유지키로 하였다. 다시 금년 1월말 대폭적인 수출세를 인하하였고, 3월에는 관세율과 적용품목도 변경하였다. 이와같이 수출세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가 불안정함으로써 러시아내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방의 기준에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石油法 1차 시안이 러시아의 최고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승인여부는 불투명하다. 동법률에는 석유가스산업의 민영화, 광업소유권, 조세및 회계제도, 파이프라인 운영등 시장경제화에 필요한 제반 방안들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은 市場經濟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보수파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서방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3) 분권화 추세

개혁이 진행되면서 석유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천연자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주요생산지의 지방정부및 생산자 그룹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더우기 최근 러시아의 자치공화국들은 자치권을 보다 확대하는 선언방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석유, 가스등 지역내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자원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가. 中央統制 약화

중앙 통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은 CIS 석유의 60%를 생산하였던 서부 시베리아 *Tymen* 지역및 사할린 자치정부와 러시아 정부와의 대립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 정부가 포고한 석유 輸出稅에 대해 *Tymen* 지역 생산업체들이 반발, 중앙정부의 재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 러시아 가스의 70%를 생산하는 *Tymen*의 *Yamal-Nenetsk* 자치주와 북부 *Caucasus* 지역의 주요 정제센터인 *Chechen-Ingush* 자치공화국 등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만큼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 금년 1월말에 발표된 사할린 대륙붕 개발의 타당성 조사권 입찰에 있어서 사할린 지방정부는 러시아정부가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3M 그룹(*Mitsui, Marathon, McDermott*)에게 낙찰되자, 입찰 결과에 불복, 최고회의에 이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결국 3M 으로 재지정되었지만, 사할린 주정부의 조치는 자원권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갈등이 정치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생산자들의 連帶 強化

생산업체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화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Tyumen*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석유업체들의 연맹(*Union of Oil*) 결성이 대표적인 것이다. 동연맹에는 CIS 11개국중 10개국의 총 56개의 탐사, 생산, 정제, 수송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CIS의 통합된 경제체제안에서 석유산업이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CIS 각국 정부에 대해 석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촉구하였다.

이와같이 생산지의 연대가 강화되자 러시아 정부는 지역단위의 공공위원회를 운영하는 생산지 중심의 생산관리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생산지와 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이들의 정치적 영향

력이 증대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중앙 정부와 지역당국간의 탐사개발에 대한 의견 차이 조정, 외국기업의 참여방안 제공, 지역내의 미개발 유·가스전 관리, 노후 유·가스전으로부터의 생산, 재정, 서서비스 지원부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여전히 분쟁 가능성이 많은 부분, 즉 가격통제, 생산자의 자유판매량, 수출제약, 조세, 장비공급문제, 석유가스에 관한 소유권 및 관할권, 수익분배 문제 등을 중앙주도로 정책을 수행하려 하고 있어 지방정부 및 생산자 그룹과의 마찰의 여지는 많은 편이다.

2. 石油 개발 동향

현재 CIS 에서는 거대유전의 자원은 枯渴되고 있는 반면, 신규 대규모 유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 러시아 유전개발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은 첫째, 기존유전에 대하여는 중소규모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프랑스의 중소규모의 석유회사, 정유사, 트레이더들이 서부시베리아 기존 유전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중소

규모 회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하고 투자형식, 이익의 형태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융통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합작사업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둘째, 유망한 미탐사 지역의 개발은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부시베리아의 Komi 지구와 극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지역은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지리적·기후적인 여건으로 대규모 투자가 요청되는 곳이다(표참조).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예상되나 CIS의 재정에 의하여 추진되리라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서방기업들은 동지역의 정치·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CIS 석유, 가스개발에 부단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對러시아의 투자는 慎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등 서방기업들에 의하여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환경이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와의 합작사업인 White Nights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기업(Phibro)이 사업참여 2년동안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

유망 개발지 현황

지 역	주 요 특 징
사할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자원 매장량, 안정적 판로 보장, 해양자원 개발의 교두보 측면에서 국제 석유기업들의 관심이 높음. · 대륙붕 개발 타당성 조사권을 일본 Mitsui & Co., 미국 Marathon Co., McDermott International Inc.의 컨소시엄(3M 그룹)이 가짐. · 동 프로젝트에는 사할린 대륙붕의 Piltun-Astohskoye와 Lunskeye 석유가스전 개발과 LNG 공장건설,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등이 포함. · Piltun-Astohskoye와 Lunskeye 석유가스개발의 추정매장량: 석유 약 7억5천만 배럴, 가스 약 4,000억 m³ · 사업 경비는 90억 달러 내외로 추산(Mitsui)
서부 시베리아 코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천후로 시베리아보다 개발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잠재력이 높은 Timen-Pechora 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개발승인 요청이 늘고 있음. · Gulf Canada/British Gas로서 Komineft와 합작투자하여 원유를 생산 수출중, 핀란드 Neste와 프랑스 Total도 코미 남부지역의 개발 승인 요청중임. · 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의 추정매장량은 12억 배럴 이상
중앙 아시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연안 Apsheron 반도와 투르크멘의 Cheleken 반도를 잇는 Apsheron Sill 지역이 유망. 이중 Azeri 유전(추정매장량: 15억 배럴 이상)은 Amoco가 개발을 주도 · Apsheron Sill 지역은 투르크멘과의 영토분쟁 위험이 있음. · 투르크멘 남부의 대규모 가스전 Sovetabad와 카자흐스탄의 북부 Karachaganak 지역의 개발 경쟁도 치열.

하였다. *Phibro*는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유전의 증산사업에 참여하여 서방기업의 러시아 합작사업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의 가격자유화는 초인플레이를 유발하여 개발비용을 크게 증대시켰고, 유전도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예상밖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 대규모 유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국제 메이저들은 입찰이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Chevron*이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전인 *Tengiz* 유전을 합작개발기로 하는 계약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지난 5월 초에 의정서 체결). 또한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원 개발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간내의 원유 증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向後 展望

러시아를 비롯한 CIS 내의 정국은 短期間內 안정을 되찾기란 어렵다. 시장경제가 정착될 때까지 실업, 초강력 인플레이, 낮은 경제성장 등으로 석유산업의 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CIS의 석유가스가 국제시장에서 지니는 영향력은 지대하므로 석유산업의 長期沈滯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동지역에 대한 서방의 투자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CIS는 개발투자에 대한 명확한 基準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에 의뢰하여 작성한 에너지 관련법이 최고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적어도 합작투자 거래에는 첫째 참여기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이를 위해 기여할 바가 있어야 하며, 셋째 파산 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CIS 국가들은 끊임없는 서방기업의 安全裝置 요구에 많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감정은 구소련 에너지산업에 대한 自我意識을 강하게 불러 일으켜 자원 내셔널리즘을 태동시킬 가능성도 있다. 최근 모스크바 신문 *Pravda*紙가 합작사업 (*White Nights*)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기업이 러시아의 자원을 掠奪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자원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국민적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제 CIS 지역에서의 시장경제화는 逆行할 수 없는 大勢가 되고 있다.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투자도 경제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서방의 투자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며, 보수 개혁파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CIS 국가들은 자원개발 또는 경제부흥을 위해 서방기준에 附合하되, 결코 자국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법·제도를 정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되는 CIS의 경제환경에 부응하고 동지역의 무한한 시장성을 감안 한다면, 동 지역의 法, 慣習, 그리고 民族性을 고려한 長期投資가 바람직할 것이다.

■ 알아봅시다 ■

브리지 (bridge) 론

자금은 곧 필요한데 충분히 모을때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 은행등에서 단기차입을 통해 필요자금을 임시 변통하는 것.

갑작스런 기업인수의 경우 인수자금을 마련할때

까지 우선 은행이 자금을 지원, 자금 필요시점과 조달시점간의 시차를 맞춰 주는 교량적역할을 한다. 이런 일시 조달자금을 브리지론이라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브리지론이란 용어는 직거래가 어려운 기관간에 중개기관을 넣어 약정된 금리나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